

Hy서초매거진이 만난 사람

신진작가 창작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다 유중아트센터 정승우 이사장



개관6주년기념사진

지난 2011년 방배동에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유중아트센터가 개관 6주년을 맞았다. 그리고 <Hy서초매거진>이 유중아트센터 정승우 이사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중아트센터 개관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중아트센터 개관 6주년을 축하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6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역민들의 격려와 믿음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

의 노력, 이 모든 게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념행사에서 강연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번 세미나는 6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토조형예술대학교와 저희가 연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완.완.완>이라는 특별교류전시도 1월 6일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관기념식으로 유중아트센터 상주 아티스트 두 분이 함께 해주셨고요. 여러 지역민들께서도 함께해주신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소개해주시죠.

2011년 11월 1일 문을 연 유중아트센터는 개관 이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많이 공헌하고 있습니다. 크게 음악과 미술로 말씀드리면 음악 쪽으로는 서울국제음악제와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굵직한 행사에 후원과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영재 오디션을 통해 그들이 더 넓은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술 분야는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했습니다. 매년 7명의 아티스트를 뽑아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작업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서리풀 아트 포 아트'는 작년부터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유중아트센터에서 진행을 했는데 많은 성원 덕분에 규모가 너무 커져 여기서 하기에는 장소적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전아트센터에서



유중아트센터 정승우 이사장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후원 위주로 활동을 했다면 올해는 저희가 뿌렸던 씨앗들이 싹을 피울 수 있도록 상업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 아트페어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제교류전과 같은 국제전시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유중아트센터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서초의 문화발전을 위해 힘쓰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지역 발전과 아티스트들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여러 국제교류문화제라든지 해외아트페어도 열심히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교토와 서초의 문화교류를 통해 서초가 문화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김민욱 기자 kmwhcn@hmall.com

